

4 종합

개인정보보호 ‘미흡’ 새 기준 도입으로 감점 “개선 방안 마련할 것”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지난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리학교가 개인정보보호 ‘미흡’을 판정받았다.

수준 진단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대학의 정보보호 체계 운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나뉜다. 이 중 우리학교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진단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총 3단계로 구분되며 대학 자가 검사, 교육부 검토,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자가 검사 단계에서는 대학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에 따라 증빙자료를 취합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한다. 교육부는 전문위원을 통해 증빙자료를 검토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수준 진단은 3개 분야, 15개 지표, 2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분야는 관리체계구축 및 운영(29점) 보호대책수립 및 이행(31점) 침해대책수립 및 이행(40점)으로 구성된다.

우리학교의 세부 점수에 대해 정보처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3개 분야 중 침해대책수립 및 이행 분야에서 가장 감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야에 속한 ‘개

인정보 유·노출’ 지표가 지난해 새로 생겨 해당 지표에서 감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보처 최효승 주임은 평가 방식에 대해 “해당 지표의 전반적인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을 판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타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교육부 측에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해 현장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초에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미인증 기관이나 이전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ISMS인증은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우리학교는 ISMS인증을 받은 기관이므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보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컨설팅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처 최효승 주임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른 미흡한 점을 면밀히 분석 및 증빙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컨설팅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도(수학) 교수는 우수 홍보 영상으로 채택된 수학과 홍보 영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규연 기자)

학과 홍보 영상 제작 발표회 열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학과 홍보 영상 제작 발표회가 지난 21일 중앙도서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자율·자유 전공학부 입학생과 예비 경희인들에게 학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발표회는 교수학습개발원 측에서 주최한 것으로, 우수 홍보 영상으로 채택된 ▲사회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과 ▲의류디자인학과의 영상이 상영됐다.

발표회에 참석한 김진상 총장은 학생이 계속해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특정 전공 쏠림 현상도 그렇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식품생명공학과와 의

상은 남윤재(문화엔터테인먼트학) 서울캠 PD 교수와 김송현(디지털콘텐츠학과) 국제캠 PD 교수가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학과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지였다.

남 교수는 “사회학의 범위가 넓어 사회학과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사회학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며 사회학과 영상을 우수작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식품생명공학과 홍보 영상은 재미와 학과의 비전을 동시에 잘 나타냈다”며 식품생명공학과 홍보 영상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생명공학과 홍보 영상은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해 Q&A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수학과, 의류디자인학과의 영상은 교수학습개발원의 투표로 선정됐다. 영상 제작 전 과정에서 학과 구성원끼리 열

마나 협동했는가를 평가했다.

박종도(수학)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며 학생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수학과 홍보 영상은 수학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최정욱(의류디자인학) 교수는 “의류디자인학과에 대한 학생의 애정, 자부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의류디자인학과 홍보 영상은 타 전공에서 전과 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재 서울캠 중앙도서관 로비에 단과대학별로 학과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우수작을 비롯해 모든 학과 홍보 영상은 단과대학 및 학과, 부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교수학습개발원은 입학 설명회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